주체 108 (2019)년 3월

16 🖁

음력 2월 10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경 애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최 고 인 민 회 의 대 의 원 선 거 에 참 가 하 시 였 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10호구 제40호분구선거장 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오전 11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꾸려진 선거장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홍서헌 김책 공업종합대학 총장, 리성욱당위원장을 만나시였다.

경축의 춤바다로 설레이던 대학구내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우렁차 게 터져올랐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적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 해나가시며 조국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력사의 새시대를 펼치시고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 를 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자들에게 따뜻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며 선거장 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호구 제40호분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홍서허총장에게 투표하시였다. 받으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인 홍서헌총장과 담화를 나누시며 사회 공업종합대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의원후보자 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김책 하고있다고, 대학이 과학교육사업과 경

제의 활성화,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제일 믿고있 는 맏아들.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건설 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바 라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 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대학이 나아 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대학의 교육사업과 과학설비, 정보기술 의 현대화를 위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거장에서 나오 시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 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 지는 경사스러운 날 자나깨나 그리며 뵙 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선거에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과 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높은 뜻을 심장 에 새기고 과학기술연구와 인재양성의 자 랑찬 성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사회 주의 내 조국을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결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한 보도를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 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 거위원회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보도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 군장병들이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력사 와 휘황한 전도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 을 지니고 우리 식 사회주의발전의 길 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격동 적인 시기에 전체 선거자들의 높은 정 치적열의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실시되였다고 하면서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 의 제14기 대의원선거는 각급 인민회 의 대의원선거법에 철저히 준하여 실

에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확

나가는 주체조선의 공민된 무한한 궁 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의 인민주권 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_ 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선거에 한사 \_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의 위력 람같이 참가하였다.

일하고있는 선거자들은 선거에 참가하 지 못하였다.

선거결과를 종합한데 의하면 전국적 으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 열정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인민의 의 99. 99%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 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 드팀없는 지향과 강렬한 의지를 다시한 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였다.

이것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방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식으로 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정권에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전국의 대한 전체 선거자들의 절대적인 지지 와 신뢰의 표시이며 세대를 이어 지 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 모든 선거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밀 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가려는 도하였다.

전체 선거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으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자기 다른 나라에 가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의 발전행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사 회주의 우리 국가의 진면모와 양양한 전 도를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공화국공민 으로서의 숭고한 자각과 드높은 애국의 아름다운 리상과 목표를 빛나게 실현할 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중앙선거위원회는 조선 모든 구선거위원회들에서 제출한 선거 결과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당선된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보

# 가 장

외 동 포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라마다 주권이 있지만 우리 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 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거를 위한 제10호 교구선거 구 제39호분구에서 투표하고 을 떠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

선거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이번 선거는 삶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공화국정권을 더욱 강 화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 성을 과시하는 의의깊은 계 기로 된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재일동포 김성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찬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 를 바친 감격과 기쁨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국에서 뜻깊은 선거에 참가하고보니 세상에서 가장 본사기자 ' 우월한 인민정권을 세워주시

있는 해외동포들이 10일 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모습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값높은 참다운 인민정권이 있기에 우리 재일동포들도 이역땅에 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존엄과 영예를 펼쳐가고있는

것이다. 재일동포 김미순은 처음으 로 선거에 참가한 소감을 이

렇게 터놓았다. 선거표를 받는 순간 눈시

수 없었다.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 는 애국의 한표를 바친 오늘 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일생 을 두고 잊지 않을것이다.

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억제할

같이 강조하였다.

가장 참다운 인민의 주권에 공화국정권과 같이 인민적인 주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강성

의를 다지였다.

번영할 래일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승리에 대한 신심 과 락관에 넘쳐 투쟁하고있 는것이다.

재일동포 한현철은 자본주 의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성원 으로 선거된다는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사회주의 내 조국이야말로 근로인민대 중의 참된 삶과 운명의 전부

이며 영원한 미래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고 피력 하였다 재일동포 리리용은 다음과

르며 뜻깊은 이날을 경축하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 \_ 는 선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 활을 마음껏 누러가는 기쁨 과 희열이 한껏 넘쳐있다.

이런 희한한 광경은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

조국인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성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 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온 겨레가 영 원히 안겨살 행복의 보금자 리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 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부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는데

본사기자

## 내세우시 주 인 으 로

국가의 주인은 인민이며 국가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 이 사회주의조선이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을 나 라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공화국정 권을 참다운 인민의 정권으로 건설 하시였다.

해방후 새 조선건설시기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를 준비하 던 때에 있은 일이다.

해당부문 일군들속에서는 대회개 회사를 누가 하겠는가하는 문제를 놓고 론의가 분분하였다. 그 적임자 로는 언변이 류창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관록이 있 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의견을 알만하다고 하시며 우리 생각같아서는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 가운데서 지난 기간 고생을 많이 했 고 광복후에는 인민정권을 받들고 성 실하게 일해오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에게 개회사를 하게 하는것이 좋 겠다고 하시였다.

하여 78살의 고령자로서 강동군에 서 온 농민대표가 물망에 올랐다.

회의전날 그 로인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년세도 많으신데 오 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겠다고 반 갑게 맞으시고 그와 담화를 나누 시였다.

강동산골에서 조상대대로 머슴살 이, 소작살이를 한 집안의 래력을 였다.

지난 3월 10일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영 원히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인민들에게서 선거받은 인 민위원인데 인민위원이란 다름아닌 인민들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군이 라고, 로인님과 같이 나이 많은분 도 인민위원으로 선거되니 이 제 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고 하 시였다.

뜻깊은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게 된 로인은 너무도 꿈만같아 몇번이 나 손으로 눈굽을 찍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 는 감동적인 사실이다.

오랜 세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

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진정 한 인민의 정권하에서 국가와 사회 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하게 되였다. 공화국에서 인민정권은 인민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 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 임진 호주로서의 사명과 읶무를 다

하고있다.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정권 은 인민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자기 의 주권적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 행하는 진정한 인민정권으로 끊임없 이 강화발전되였다.

어느해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북도 사리원시를 현지지도하시

이른새벽 일군들과 함께 시내를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 내의 중심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 고 맞은편 공지를 가리키시며 거기 에 고층살림집을 앉히면 좋겠다고

한 일군이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고층살림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지금 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건설되 까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설계 였다. 에서 빼놓았다고 말씀올리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는가고 리유를 물으시였다.

가 눌리울것 같아 그 부지를 그대로 올리였다. 두었다고 대답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개 를 저으시며 아니라고, 인민이 주 인된 우리 나라에서는 정권기관청 사가 근로자들의 살림집보다 낮은 것이 흠이 아니라고, 정권기관청사 보다 살림집이 높으면 더 좋다고 하시였다

하여 후날 그 공지에는 주민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심혈과 을 위한 고층살림집이 건설되게 되

>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아니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장하여주는 복무 기관이며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관 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게 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 으신 뜻에 받들려 인민이 쓰고살 살

림집이 높이 일떠서게 되였다.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민의 정치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국호도 인민공화국, 정권도 인민정권, 군대 도 인민군대로 되였다. 인민문화궁 전,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인민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 선을 방문한 외국의 한 문필가를 위 하여 오찬을 마련하신적이 있다.

그때 그 문필가는 수령님께 슬기 그 일군은 그 자리에 높은 주택을 로운 조선인민의 번영을 위하여 부 앉히면 맞은켠에 있는 정권기관청사 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고 인사를

>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 을 위해서 오래 살라니 참으로 고맙 다고 하시였다.

후날 그는 그 사실에 대하여 외 우면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만 화 제에 오르면 금시 활기를 띠시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글은 마땅히 인민적인 송가로 되여야 할것이다라 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민위천의 사상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신 위대한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을 지배하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 화국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 조적인 삶과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

본사기자 리 설

잘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 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겠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 학기술대학 학장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신재영은 그날의 감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 기하였다.

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하나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공화국공 민이라면 누구나의 가슴속에

서 끓어넘치는 격정과

환희이다.

그것은 위대한

령도따라 더욱

의원선거를 통하여 공화국 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다시 금 힘있게 과시되고 국가주 권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 게 되였다.

사랑을 안고 오시였던가

믿음을 안고 오시였던가

그이는 오시였다

인민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장으로

평범한 인민의 한 성원이 되시여

그이는 인민의 령도자이시건만

인민들속에 계시기를 락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수천여리

아직도 다 풀지 못하셨으련만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함을

그것은 다 잊으신듯

《 시

자신을 인민의 충복으로 생각하시는분

자신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는분

그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쌓이신 피로

폭풍치듯 환호하는 선거자들의 열광에

그이는 온 나라 인민들 다 만나보시는듯

0

보

## ol

하

리 송 일

기쁘시여 자애로이 답례하시며 대의원후보자에게 찬성의 한표 주셨나니

그 선거표에 담으신 그이 뜻이던가 투표장을 나서시여 대의원후보자의 손 다정히 잡아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를 바란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던 그 말씀

아, 인민의 어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크나큰 은정과 믿음을 주신 그이의 한표에는 정녕 사랑만이 깃들었던가

그이의 한표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이 어린 사회주의 인민의 내 나라 세상만방에 더 높이 떠올리실 불같은 의지가 비꼈어라

미

김 영 일

흥겨운 춤바다로 설레이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 사람들 떠들썩 웃음속에 하는 말 우리 대의원후보자 정말 훌륭하다네

나이지굿한 녀인은 자랑한다오 대의원후보자는 우리 작업반장이라고 수년세월 도로를 제 집뜨락처럼 묵묵히 관리하는 그의 수고 아름다운 거리가 다 말해준다오

사람들 저저마다 터놓는 그 사연 얼마나 가슴 울리오 보도블로크 하나 드놀세라 휴식날도 명절날도 바친 그의 정성 오늘도 가슴 뜨겁게 적셔준다오

이른새벽에도 깊은 한밤에도

늘 도로에 구슬땀 바쳐온 녀인 비오는 날에도 눈오는 날에도 제일 먼저 거리로 달려나간 녀인 그의 진정과 헌신을 두고 사람들 이야기는 끝이 없을듯

선거장에 이야기꽃이 피여나네 평범한 도로관리원이 국가의 정사를 론할수 있는 대의원 이라니

이런 참좋은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인민이 주인된 내 나라가 제일이라네

아, 누구나 찬성의 한표를 바칠 한마음 깊어지는 선거자들의 마음이여 진정 우리는 누구를 위해 투표하는가 인민의 나라 인민의 세상에 사람들은 교마움의 인사를 드리네

선거가 진행되였다. 북변의 산간마을로부터 외 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각

지의 인민들이 숭고한 공민 적자각을 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 가하여 찬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침으로써 공화국 의 정치사상적힘, 일심단결 성실한 피와 땀을 다 바쳐 의 참모습을 힘있게 과

시하였다. 권모술수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란무하는 자본 갈 각계층 인민들의 드높

주의나라들에서의 선거와 달 을 대의원으로 추천하는 공 화국에서의 선거는 명절분위 기속에서 진행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된 날도 크나큰 격정과 환희속에 흘 렀다.

선거자명부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보며 선거표를 켜선 인민군장병들, 지난 될 주인공은 누구일가

에

민들, 《선거장》이라는 글 발앞에서 가슴울렁이며 선거 의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른아침부터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될 시각을 그려보던 공

온 나라 방방곡곡의 선거 장들마다에서는 참다운 인 민의 나라, 사회주의조국 의 더 밝은 앞날을 위하여

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

의 국기》 등의 노래가 울

3월 10일 오전 10시, 온 나

라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일

들, 조국의 천리방선을 지

제히 투표가 시작되였다.

려퍼지였다.

《조국찬가》, 《우리

리게 체험한 백살장수자할 머니로부터 태여나 처음으 로 선거에 참가하는 나어린

날 나라없던 설음을 뼈저

누구나 공화국정권을 더 욱 반석같이 다져 자기들의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인 사 회주의제도를 영원히 지켜 가려는 애국의 마음을 가다 듬으며 찬성의 한표를 바치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날도

선거자들의 마음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올해에 진행되는 최고인민

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때

에는 그이께서 어느 선거장

큰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제

과시 한

로 달리였다.

항일의 로투사들, 전쟁로 에 나가시여 누구에게 찬성

병들,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의 투표를 하실가. 그 크나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선거장에 나오신 그이의 모 습을 우러르며 대학의 교직

해졌다

원, 학생들은 **《**만세!**》**의

모두가 그 소식을 기다

리고 있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

학에 꾸려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호구 제40호분구선거장

을 찾으시였다는 보도가 전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 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 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 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

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수령님들께서 세워주고 빛내 여주신 인민정권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화해나갈 철석같은 맹세의 분출인것이다.

### 지난 10일 공화국에서는 최고인민회 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 행되였다.

선거를 통하여 전체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 게 뭉쳐 공화국정권을 반석같이 다지 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나가려 는 애국의 열의를 높이 과시하였다.

각계층 선거자들과 대의원후보자 들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건설하 시고 그 강화발전에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면 서 공화국을 길이 받들어갈 자신들의 결의를 피력하였다.

선거장을 찾은 해외동포들은 찬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친 감격과 기 쁨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 마다 주권이 있지만 우리 공화국정권 과 같이 인민적인 주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조국인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 여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일심단결 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되고 흥겨운 노래 춤으로 설레이는 선거장마다에서 찬성 의 한표한표를 바치는 선거자들의 얼굴 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 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애국충정을 다 할 결의가 어리여있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 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 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정권의 인민 적성격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받들어 공화국을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불패 의 사회주의보루로 강화하도록 하시고 인민정권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모든것을 인민 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 거하여!》라는 구호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고있으며 그 생활 력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 멸치는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렷이 나타나고있다.

지난해에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 로 만들어낸 궤도전차, 무궤도전차들과 질좋은 경공업제품들,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거창한 대건설장들에서의 성과 들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잠재력과 위 력을 잘 보여주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 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공화국의 혼연일체는 주체조선의 무한대한 힘의 근본원천이며 공화국정권은 이 위대한 일심단결로 백승의 력사를 빛내여가고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 에서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속에서도 •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 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다시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것은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 우리 인민 🤉 의 억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 식 사회 주의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갈수 있다는 진리라고 하시였다. 올 해에도 우리의 전진과정은 부단한 장 애와 도전에 부닥칠것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 려세우지 못할것이며 우리 인민은 반 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리상과 목표를 빛나게 실현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두다 참다운 인민의 나 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 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가 자고 호소하시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해가는 오 늘의 현실은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 가 있어 인민의 존엄높고 보람찬 삶은 끝없이 이어질것이며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는 참다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 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공 화국의 강용한 기상을 다시금 힘있게

량수 남

선거를 한 오늘의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라울 까스 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국 가리사회 위원장, 내각수상 (당시)이 주체104(2015)년 9월에 보내여온 선물이다.

과야베라는 남자용샤쯔 운 여름철 기후에 알맞게 로서(긴것, 짧은것) 무더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리상으로 그려보던

훌륭한 교육제도가 수립되여

전체 인민이 전반적무료교육

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우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공화국에서는 지금으로부

터 60여년전인 1956년부터 전

반적초등의무교육이, 1958년

부터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이

그후 1959년 3월 내각결정

에 의하여 전반적무료의무교

육제실시가 선포됨으로써 공

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이 온갖 교육비부

담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

에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

의 완전한 실시로 자녀교육

에 대한 인민들의 세기적숙

망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원

만히 실현되였고 사회주의

무료로 실시되였다.

였다

누려가고있다.



# 에 수직모양의 줄무늬를 장

시원하게 만든 옷이다. 옷



교육제도가 더욱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전 반 적 무 료 의 무 교 육 제 도 는

조국과 미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신 절세위인들

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마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되였다.

되였다.

식하는데 수를 놓아 장식 하기도 한다고 한다. 과야 베라는 가슴부위와 허리부 위에 주머니를 단것이 특징 이며 목화나 비단실로 섬세 하게 만들어 열대지방나라 들에서 장중한 의식때 례복 으로도 입는다고 한다. 아 마직이나 합성섬유로도 만 든 과야베라의 력사는 18세 기 꾸바의 쌍크띠 스베리뚜 스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였 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 옷이름을 마 을을 지나가는 야야보강의

교육사업발전에 언제나 깊

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후대들

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

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고 하시면서 교육사업

과 후대들을 위한 인민적시

책들을 끊임없이 베풀어주시

였다.

이름을 따서 《야야베로》 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 면서 그 옷의 설계에 여러 가지 변형을 주고 《과야베 라》라고 이름을 고치게 되 였다고 한다. 꾸바의 해방투사들은 옷 의 량옆밑부분을 터쳐놓아

니다가 적이 나타나면 꺼 내쓰기 편리하게 만들었다 고 한다. 전쟁로병들은 그후에도

칼을 몸에 숨겨가지고 다

《과야베라》를 순수한 애 국주의상징으로 입고 다녔 다고 한다.

로 하여 공화국의 전반적무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외

진 섬마을에까지 학교가 건

설되고 교육에 필요한 온갖

물질기술적토대와 교원양성

며 전면성을 띠고있다.

에서 도시로 《과야베라》 가 퍼져나갔는바 이 옷은 꾸바의 농민들과 늙은이들 로부터 도시의 부유층에게 까지 전파되였다고 한다. 조선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농촌

원수님께 이 선물을 올리면 서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 단장은 《이 옷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울 까스뜨 로 루쓰동지가 올리는 선물 입니다. 이 옷은 꾸바의 민 족옷으로서 아무 계절에나 입을수 있는 옷입니다. 꾸 바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 때에도 이 옷을 입고 참가 하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적 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있습니다.》라 고 하였다.

본사기자

##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 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있어

여러 농촌지역의 학교들과 유격근거지의 아동단학교들 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의무 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하시여 독창적인 무료교육제의 고귀 한 경험과 전통을 마련하시 였다. 이에 기초하시여 해방 후부터 새로운 조건과 환경 에 맞게 인민적교육시책들을 실시하시면서 전반적무료의 무교육제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 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인 민적인 교육제도이다.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 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해주고있 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 육,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교육도 모두 국가의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세계에 자랑떨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무

거운 학비부담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중퇴하는 학 생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 고있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 로 되고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마련되고 빛을 뿌리는 공화 국의 교육제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는것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기 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만 료의무교육제도는 그 대상과 방에 더욱 힘있게 과시하 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 로 높여 새 세대들을 중등 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 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 유한 주체형의 인재로 키우 시기 위하여 교종간의 련계 와 학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되여있는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시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 래관이 집약되여있는 중대한 조치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다녀간 외국인들은 《조선 이야말로 교육의 나라》라고 격찬하고있다.

김청 송

###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40 H 한다

오늘 민족의 화해와 단합 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 써나가려는 온 겨레의 의지 는 날로 강렬해지고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 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민 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구 현하는것은 그 무엇보다 중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으로서 그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외세를 배격 하고 온 겨레가 뜻과 힘을 합치는 자주와 단합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다. 이 것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 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 에서 우리 겨레가 찾고 새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 이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위업 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 여서는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북남관계는 피를 나눈 동 족사이의 관계로서 북과 남 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 치되여있는것이 아니라 하 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 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 으로 갈라져있다. 조선민족 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 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하나 의 언어로 말을 하며 한강 살아온 단일민족이 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 에서 살긴 남에서 살긴 해 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 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 익과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뗼수 없이 런결되 여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

10

10

기

八

진리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민족 적화해와 평화번영, 자주통 일을 위한 길에서 소중한 성 과들이 이룩되였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세 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이 진행된것은 전례없는 일 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 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

의 요구와 지향을 담은 력사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온 겨레에게 민족의 밝은 래일 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락판 을 안겨주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북남 선언들에서 우리 민족의 운

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 으며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 환적국면을 열어나갈것을 확 약하였다.

서도 북과 남은 민족자주와 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 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 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 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 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

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

조국통일은 바로 우리 민

큼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

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

하기에 력사적인 판문점선

언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

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

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관한 문제인것만

해나갈수 있다.

것은 당연하다

우리 민족과 민족성을 말살

할수 없다.

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 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 야 한다.

북남관계문제에 그 어떤 외세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명분이 없다.

북남관계문제에서 외부세 력의 눈치를 보거나 그에 의 존할 리유가 없으며 그렇게 계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 구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 갈수 없을뿐아니라 결국에 는 민족의 리익만 해치게 된다

현실은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 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 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외세

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

통일교실

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

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

지나온 조국통일운동의 력

사는 조국통일의 주체의 위

력을 강화할 때 민족의 화해

와 단합, 나라의 통일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

룩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6.15자주통일시대에 당국

과 민간이 따로 없이 사상과

정견,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

여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사

북남관계문제는 그 주인 고 민족중시의 립장에 확고 히 서서 모든 문제를 민족 의 요구와 리익을 앞세우는 데 복종시켜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광조가 북

남관계발전의 추동력이라면 외세추종, 외세공조는 평화 와 번영, 통일의 장애물이 다.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 합치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 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 야 한다.

북남관계가 새로운 단계 에 들어선 오늘 외부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그에 추종하 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 이다. 북과 남은 외세가 아 니라 우리 민족끼리 굳게 손 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 거하여 외부의 온갖 방해책 동을 짓부시며 평화번영과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

이 활기있게 진행되여 민족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해 외

약소민족이 아니며

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

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

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절이고 비운이다. 외세에 의

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

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

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

민족의

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

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

3. 1절 100주년기념

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

을 위한 해외동포대회가

2월 26일 일본 도꾜에서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의장, 대회실행

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인 손

형근 6.15공동선언실천 해

외측위원회 위원장과 남승

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

의장, 명예위원장인 안병

옥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

회 부회장, 실행위원회 부

위원장들, 실행위원들, 신

필영 6.15공동선언실천 해

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

위원장, 선경석 6.15공동선

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

지역위원회 상임대표, 리창

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롯한 총련일군들, 일본, 해

대회에서는 6.15공동선언

들이 참가하였다.

진행되였다.

5천년민족

일시적인 곡

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

갈라져있는것은

사에서 겪게 된

연적추이이며

합법칙적요구이다.

업,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 민들이 북남관계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책동을 배격하면 서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요 구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 도 당연하다.

외부세력의 온갖 방해책 동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력 도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기 치높이 평화와 번영, 통일 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 족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온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받들고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원칙에 확고히 서서 평화번영과 통일의 전 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 쟁에 더욱 힘차게 펼쳐나서 야 할것이다.

김명 강

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 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 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 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 으며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이와 함께 우리 민 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 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 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 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이 야 한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 라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 계적인 강국으로, 민족의 강 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나라, 동 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 도하는 정의의 나라로 그 존 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온 겨레는 민족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 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 임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 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김 명 진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 남조선의 민족작가련합이

## 통일문학예술활동을 벌려나갈것을 선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사 람일보》에 의하면 9일 민족 작가련합이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통일문학예술활동을 벌려나가기 위한 문제를 토

의결정하였다. 발언자들은 작가들이 개 인리기주의와 분렬적사고 방식을 버리고 민족적이 공동체적인 통일사회 만드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문학예술작품들을 창

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어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조선반도평화실 현을 위한 북의 실천적조치 들에 미국도 상응한 조치들 을 취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자유한국당》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민중학 살을 정당화하며 민족을 향 해 독화살을 날리고있다고

결의문은 단죄하였다. 결의문은 더이상 비극의

력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이라는 악의 뿌리를 송두리채 뽑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가들이 하나로 굳게 단 결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통 일된 조국을 안아오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결 의문은 선언하였다.

본사기자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조선반도에 서의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 가고있다.

성기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하게 나 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와의 공조를 서는것이 한국(기)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서는것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립장을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립장은 평화번 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쟁에서 항시적으로 견지해야 할 립장 이다. 己

선언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이보다 더 어리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 석은짓은 없다. 자결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 나가자면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 대 제를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한 외부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갈것을 주장해나 하지 말아야 한다.

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제 가도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며 평화 로막을수 없다. ┢┣ 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없다. 지난 ■ 시기 외세의 간섭과 개입으로 하여 좋 계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 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하루아침에 경 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 색국면으로 치닫고 대결과 적대의 악순 며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기치높이 평 하이 지속되여오 사실들마 놓고서도 그 하인 버역 톤인이 저성기를 열어나고 환이 지속되여온 사실들만 놓고서도 그 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 不上 것을 잘 알수 있다.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의 국면

이 펼쳐진 지금도 외세는 《대북정책 공조》를 운운하며 남조선당국이 북남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각방으로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고있다. 배격하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겨레의 앞길에 예측 하기 어려운 장애와 난관들이 조성될수

주었다

조선반도에서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 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오늘 외부세력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광동 의 눈치를 보거나 그에 추종하는것은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외세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견지해 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북남관계문 서고있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반외세투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 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외부세력의 그 어떤 도전과 방해책동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 도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기치높이 나 력의 간섭과 개입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 아가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흐름을 가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 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 야 한다.

리 현 호 온 현대사가 소개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시기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이어 허종만의장이 축사를 하였다.

그는 반일민족해방운동사 민족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 조하였다. 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 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 한 애국정신을 지닌 민족이 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 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안아

였다고 말하였다. 3.1인민봉기가 있은 때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력 부터 한세기가 되는 오늘 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 온 겨레가 피흘러 쟁취하려 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 고 애써온 전민족적인 자주 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 의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하 독립과 그토록 념원하던 나 를 열어나가자!》는 구호 였다. 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 를 높이 들고 올해를 북남 기 위한 투쟁은 중대한 력사 관계발전과 평화번영, 통 적국면을 맞이하고있다고 그 일에로의 려정에서 획기적 외, 남측의 각계인사와 동포 는 밝혔다.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장서나갈것이라고 그는 말 실천 북측위원회에서 보내여 적대와 반목, 불신과 대결 하였다. 의 과거사를 대담하게 털어

버리시려는 강렬한 통일의지 와 헌신으로 세차례의 북남 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력사 행, 일본의 식민지과거청산 부세력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적인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 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 1919년 3.1인민봉기는 조선 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시여 북 족차별의 철폐를 위해 힘 민족은 결코 노예로 살기를 남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 을 합쳐나갈것이라고 강조 국은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계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강

한 령도따라 부강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재일조선인 있었다. 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 그는 지난해 경애하는 적인 해로 빛내이는데 앞

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 하였다.

발언자들은 판문점선언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 의 보고에 이어 해외대표 였다. 및 재일동포들의 연설들이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일 오기 위해 총매진하고있는 본제국주의자들의 불법강점 에 항거한 3.1인민봉기는 나 라의 독립과 통일을 외세에 기대하여서는 안된다는 피

3.1인민봉기가 과시한 민 족자주정신을 철저히 계승해 은 올해에 북남선언들을 리 행하는 거족적인 운동을 더 한층 가속화함으로써 북남관 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국 나》가 진행되였다. 이어 련대발언들이 있었다. 통일실현에서 획기적인 전진

이룬하여야 주장하였다.

해외동포대회

그들은 북남선언들의 리 불미스러운 움직임을 저지 파탄시켜야 하며 남조선당 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 대회에서는 손형근위원장 을 증지해야 한다고 지적하

이어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결의문은 민족공동의 새 로운 통일리정표인 력사적 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 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운 동을 적극 벌러나가며 모든 해외동포들을 하나의 통일력 량으로 묶어세워 민족의 화 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 적으로 확대강화하는데 특색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 있게 기여해나갈것을 강조하 였다.

> 대회가 끝난 다음 예술공 연 《봄맞이공연—우리는 하

본사기자

생들의 《대북》 인식실태를 보 았다고 한다. 여주는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보아야 한다.》 고 대답한 학생 이 급격히 감소되고 동족관념이 남조선의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들은 불과 5.2%로서 그 전해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든 반면에 《한민족, 통일해야 할 대상》 라고 한 응답자들도 50%이상에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통일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부와 교 함으로써 《20년이상 걸려야 한 어난 격동적인 사변들을 통하 가리울수 없다. 육부가 초등 및 중, 고등학교 학 다.》고 한 학생들보다 훨씬 많 여 남조선청소년들스스로가 화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전문 은 전도가 있음을 폐부로 절감 가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화 하였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그에 의하면 《북을 적으로 해분위기로 북에 대한 적대감

# 01 01

났으며 《협력해야 할 대상》이 해 세차례의 북남수뇌회담으로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과 《대북》 신뢰심이 높아지고 전 보수언론들이 반통일대결책동에

그 전해보다 늘어났을뿐아니라 한것과 관련된다고 평하고있다. 였기때문이다. 주목되는 여론조사결과는 지 그러나 거짓과 궤변은 오래갈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라고 한 학생들은 대폭 늘어 높아졌다고 하면서 이것은 지난 통일의식이 낮았던것은 《자유 달하였다. 또한 《통일이 필요 교조를 비롯한 교육계가 학생들 광분하면서 새 세대들에게 동족 주통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며 하다.》고 한 응답자는 63%로서 속에 통일에 대한 교육을 강화 에 대한 적대의식을 강제주입하 그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

이 10년내 가능하다.》고 대답 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 수 없으며 손바닥으로는 해빛을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를 사랑 해단합과 자주통일에 민족의 밝 하는 새 세대들이 진실을 받아 들이고 련북통일을 지향해나서 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였다.

> 자주통일의 대업을 떠메고나 가야 할 역군들도, 통일된 강 토에서 살게 될 미래의 주인공 들도 바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 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새 세대들에 게 동족에 대한 옳은 인식과 자 일조국을 물려주기 위한 의로운

김 광 률

《청년당 백두산기행단》 남조선

### 화 번 자 Oŀ 표 며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4일 남조선의 《청년당 백두산기행단》이 통일부앞에서 《가자 백두산으로》 백두산관광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 이 맨 앞장에서 조선반도의 평화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번영과 통일을 안아오겠다는 굳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주연 《청

의지를 표명하였다.

가봐야 할 백두산관광을 청년들이 백두산에 올라 평화번영과 통일을 앞장서서 성사시켜 통일의 그날을 기원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선반도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해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는 전설 년당 백두산기행단》 단장은 백두 고 통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를 높이였다. 산기행목적이 조선에서 태여나 꼭 하면서 통일이 앞당겨질수 있도록

그러면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또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원칙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길 을 청년들이 열어나가는데서 백두 산이 그 열쇠라고 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열어냈던 백두산으로 뿐만아니라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가는 길을 이제는 조국통일을 위 령산이자 상징이며 분렬을 극복하 해 다시 열어내야 한다고 목소리

본사기자

매 가정에는 자기나름의 가 풍이 있다. 그 집안의 가풍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람의 인 격형성도 주요하게 좌우된다. 집안에 가풍이 있다면 나 라에는 국풍이 있다.

국풍이란 나라의 풍속으로 서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 되여 내려오는 생활규범이나 방식을 말한다. 국풍에는 해 당 나라의 력사와 전통, 민 족적인것이 담겨져있을뿐아 니라 매 인간들의 인생판, 생활관 등도 반영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빛나는 국호를 가진 조선 의 국풍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어디서도 찾 아볼수 없는 고유하고도 우 수한 국풍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 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함 께 해나가는것은 공화국의 제 일가는 국풍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은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일심단 결의 나라이다.

전후 그처럼 어려웠던 나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얼 굴이 많이 축간것 같은데 너 무 근심하지 마시라고, 이제 는 다 잘살게 되였으니 녂려 마시라고, 우리는 수령님을 지지한다고 말씀올린 한 할 머니의 소박한 말은 그 누 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일 념에 불타는 온 나라 인민의 진정한 마음의 분출이였다. 하 늘 처 럼 믿 고 살 던 어버이수령님을 천만뜻밖에

잃고 엄혹한 자연재해까지 덮쳐들었던 그때 외국의 기 자들이 재해지역의 한 로인 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인가고 물은적이 있었 다. 그때 로인은 《큰물에 집도 잃고 가산도 잃었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돌보시기때문에 이제 집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더 잘살 날이 온다.》고 말해 주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며 승리와 영광 만을 펼쳐온 자랑스러운 전 통은 오늘 또 한분의 위인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굳 건히 이어지고 빛을 뿌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조선 로동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 를 조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매혹 되여 인민들은 우리 원수님 이라 목메여 부르며 그 품 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 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 들의 초소, 일터에 찾아오시 면 격정속에 울고 웃으며 한 없이 넓은 그 품에 안겨들 고 떠나가실 때면 차디찬 바 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 며 따라서는 그 모습이야말 로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 아볼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 의 혼연일체의 화폭들이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자기의 힘으로 앞길을 개척 해나가는 투쟁기풍도 공화국 의 자랑스러운 국풍으로 되 고있다.

자력갱생은 공화국의 투쟁 전통이고 승리의 원동력이 다. 제힘을 믿지 않고 자력 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지 못 하였더라면 부강번영하는 오 늘의 공화국에 대하여 생각 할수 없다.

3년간의 전쟁으로 재더미 밖에 남은것이 없던 그때 큰 나라들의 도움이 없이는 허 리는 고사하고 손가락도 펴 지 못할것이라고 하는 사대 주의자들의 면상을 후려치며 이 땅에서 기적의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공화국은 자력갱 생의 기치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국 가로 솟구쳐올랐다.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 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속에서도 공화국은 자력갱생 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 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 게 전진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에 필요한것들을 자체의 자 원, 자기의 힘과 기술로 만 들어내며 도처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념비적창조물 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워 가고있다.

땅속에서는 자기 힘으로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고 땅우에서는 자기 힘으로 만 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 도전차가 달리고있는것이 자 력갱생으로 비약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현실 이다.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 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것도 공화 국의 우수한 국풍으로 되고 있다.

사경에 처한 환자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고 청춘남녀들이 특류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 하며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 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처럼 돌봐주는 아름 다운 소행들이 저 하늘의 은 하수처럼 많고많은 공화국 이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자 기를 바치는데서 더없는 기 쁨과 행복을 찾는 나라, 하 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사회, 사랑이 차넘치는 아름다운 인간사회 가 공화국이다.

이 땅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며 즐겨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는 누구나 한식솔, 친형제가 되 여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누 려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이 어리여있다.

이밖에도 공화국에는 고유 의 훌륭한 국풍들이 많다. 이렇듯 특이하고 우월한 국풍으로 하여 공화국은 강 하고 아름다우며 그 미래가 더욱 창창한것이다. 앞으로 도 공화국은 새로운 국풍을 창조하며 끝없이 무궁번영할 것이다.

량 명 철

# 대가정을 이루고 서

에

え]

ゔ゙゙゙゙゙

로 돕고 이끌며 화 목하게 사는 공화국 에는 가슴뜨거운 사 랑과 정에 대한 이 하 야기가 헤아릴수 없 이 많다.

온 사회가 하나의

전쟁로병의 친자 식이 되고 청년들이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을 자기 자 식으로 품어안아 키 우는 교마운 어머니 들의 소행은 이 땅 에서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지난해 5월 평양 시 형제산구역의 한 살림집에서는 만사 람의 축복속에 특 류영예군인인 리일 혁의 결혼식이 진행 되였다.

많은 사람들의 성 의가 깃든 결혼상을 마주한 리일혁의 가 슴은 뜨거웠다. 그 시각 그에게서 제일 안타까운것은 특류 영예군인인 자기와 일생을 함께 할 결 심을 품은 신부 김 성희와 자기의 생활 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 이렇듯 결 혼상까지 마련해준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볼수 없는 것이였다.

몇해전 그는 군사임무수행 중 뜻밖에 두눈을 다쳤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많 은 사람들이 그의 두눈을 대 신해주었다. 침상에서 맥을 놓을세라 매일이다싶이 달려 와 힘과 용기를 안겨준 정다 운 이웃들과 생면부지의 사 람들...

그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서성구역 련못동에서 사는 주학철, 김영미부부도 있었 다. 색다른 음식감이 도 달려오고 건강회복에 좋 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먼길 도 주저없이 떠나군 하며 바 쳐온 그들부부의 진정은 뜨 겁고도 진실하였다.

리일혁에게 일생을 같이 할 처녀가 나타나자 결혼식 준비는 자기가 다 맡겠다며 세심히 마음쓰던 주학철의 모습은 일터에서 순직한 친 아버지의 모습으로 깊이 새 겨졌다.

하기에 리일혁은 뜻깊은 결혼식날 신랑, 신부의 고마 움이 비낀 술잔을 그에게 권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만 펼 쳐질수 있는 감 동깊은 화폭이였 다. 이런 미덕이 만발하는 공화국 을 두고 외국의 한 인사는 《조 선은 아름다운 인간향기가 진동 하는 사회》라고 감동을 금치 못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 의사회에서는 사 람들사이에 서로 혈육간에도 죽일내기를 하는 풍조가 만연되고있다.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어느

한 시에서는 18살 난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 났는가 하면 시가현 오쯔시 에서는 50살 난 아들이 전기 선으로 자기 아버지의 목을 졸라 죽인 사실이 폭로되여 물의를 일으켰다.

패륜패덕이 만연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모성애마저 말 라버리고있다. 지난해 도꾜 의 한 식당에서는 내버려진 1살 난 애기가 발견되였다. 경찰의 수사과정에 붙잡힌 《아이가 필 애기어머니는 요없다. 나는 자유롭게 놀 고싶다.》고 공공연히 말하

남편이 안해와 어린 두 딸 을 불태워죽인 사건, 어머 니가 4살 난 아들을 때려죽

돕고 사랑하는것은 고사하고 인 사건, 태여난지 5개월밖 에 안되는 딸을 벽에 내동 댕이쳐 살해한 사건 등 일 본에서 일어나고있는 비인 간적이고 말세기적인 범죄 행위들에 대해 꼽자면 끝이 없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삶 에 대한 비관과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와 협 잡, 살인과 도박 등 범죄행 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것이 바로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사랑과 증오의 판이한 두 현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 룬 공화국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의 락 원이라는것을 웅변해주고있 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 누 구나 이 나라와 제도를 끝없 이 사랑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는 특류영예군인

은혜로운 해빛아래 날과 달이 갈수록 더해지는 복 된 삶의 녀성찬가가 울려가 는 지금 우리는 창전네거리 에 서있다.

창전네거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느라니 복받은 이 나 라 녀성들의 행복한 모습들

옥류교를 건너 창전네거리 로 들어서는 새형의 무궤도 전차가 시야에 비껴든다. 경 쾌하게 차를 몰아가는 중년 의 녀성운전사는 언제인가 TV화면에서 소개된 그 공훈 운전사가 아닌지.

그에게 거리를 지나던 녀인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저앞의 평양제1백화점을 보니 녀성지배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인민극장앞에 서니 복받은 삶을 노래와 춤에 담 은 녀성예술인들의 모습이 어리여온다.

그런가하면 웅건한 만수대 의사당에서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녀성대의원들의 름름 한 모습도, 평양학생소년궁 전에서 나라의 왕들을 키워 가는 녀성교육자들의 모습도

녀성들의 자랑스러운 군상이 비껴있는 창전네거리이다.

봉건의 끈질긴 세습이 연 약한 가슴들을 칭칭 얽매여 놓아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 하던 어제날의 우리 녀성들 이였다.

삼종지의, 녀필종부, 거지악과 같은 남존녀비의 허다한 질곡에 구속되여 그 들의 한생은 속절없이 흘러 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닌 이 나라 두메산간마을, 어촌마을 그 어디에나 가보

의 일본새, 특류영예군인의

몸소 다녀가신 김정숙평양방 직공장 로동자 문강순의 집 도 있다.

평범한 방직공을 혁신자 로,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 워주신것만도 분에 넘칠진대 새 살림집에 찾아오시여 정아버지보다 더 뜨거운 혈 연의 정으로 생활의 구석구 석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신 어버이의 다심한 은정 그 어

디에 비기랴. 이 무상의 행운이 어찌 그 려나 임금삭감에 산업재해까 지 당하고있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 신문은 녀성 들이 결혼, 해산, 자식, 가 족 등으로 하여 사회생활에 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하 면서 이것은 녀성차별현상 이 만연되여있는 자본주의 의 불치의 병이라고 개탄하 였다.

하지만 우리 조국에서 녀 성들은 람홍색공화국기를 자 기의 운명으로 류다른 감정 속에 우러르고있다.

저 람홍색기발이 아니라 면, 저 기폭이 아니라면 우 리 녀성들의 운명은 과연 어 떻게 되였겠는가.

강대하고 존엄높은 나라 를 일떠세우신 절세위인들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 한 령도따라 세기의 하늘높 이 더욱 힘차게 나붓길 공화 국기와 함께 이 나라 녀성들 은 나라의 꽃들로 더욱 활짝 피여날것이다.

최 수 영

# 어린이들의 건강과 지능발달을 위해

—조선어린이후원협회에서—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튼튼 하게 키우는것은 나라의 미 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

이다. 2013년에 어린이들을 전 문 후원하는 사회단체로 창 설된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 지 능발달, 생활관련봉사를 개 선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건 강하게 키워 미래를 떠메고 나갈 역군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정부의 사업을 방조하 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 고있다.

협회는 어린이건강 및 영 양, 지능발육, 생활분야에서 의 전문일군보장기지, 조정 단체, 통신사무소, 어린이들 을 위한 협조통로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있다.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지부협회와 현지사무소들 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산 하에 아동진료소, 정보보 급실 등을 두고 운영하면 서 육아원과 탁아소, 소 아병원들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후원하고있다.

협회에서는 어린이들의 건 강, 영양, 생활개선에 관한 통보와 교육, 봉사를 보장하 는데 힘을 넣고있다.

호담당의사 들과 협회회원 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들 속에서 예방접 종률을 높이기 위한 강습과 아동진료소. 육아원, 탁아 소보건일군들 을 위한 조기 어린이질병적 발 및 관리와 어린이보육 및 영양에 대한 강습 등을 진

행하고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 및 영양, 교육, 생활개선에 관 한 정보와 봉사에 대한 수요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요인으 로 원만히 해결받기 어려운 대상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협회에서는 협조지역들에 나가 이동진료소활동들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들속에서 발병률과 예방접 종루락률을 낮추기 위한 위 생선전활동들을 적극 벌리

고있다. 육아원과 탁아소, 유치원 들에 나가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와 위생상태를 정상적으 로 료해하고 어린이들속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질병들 을 미리 막기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도 진행하고있다.

한편 협회산하 어린이지 능개발실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지능발달에 좋은 제 품들을 개발하고있으며 생 산기지들에서는 우웡항비 루스물약을 비롯한 여러가 지 고려약들을 만들어 어린 이들의 병치료에 도움을 주

고있다. 그리고 협조대상으로 지정 된 탁아소, 유치원들과 소아

병원들에서 어린이건강의료 봉사에 필요한 의료용소모품 들과 의료기구들에 대한 수 요평가사업과 시범적으로 꾸 려놓은 어린이영양제생산공 정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 들을 진행하고있다.

협회에서는 또한 협회의 존재와 목적, 사업들을 소개 하기 위한 광고활동, 공보활 동 등을 진행하고있다.

국제아동절과 어린이건강 의 날, 세계보건의 날들을 맞으며 사진전시회, 어린이 건강관련토론회 등을 진행 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 적후원분위기를 높여나가고 있다.

협회에서는 류사한 사명을 지닌 국제적인 정부 및 비 정부기구들과 산하 민족단체 들, 사회단체들과 자선단체 들, 재단들, 개별적인사들과 앞으로의 협력사업도 계획하 고 추진하고있다.

우리와 만난 김명철 조선 어린이후원협회 서기장은 어 린이후원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라의 기둥감들인 어 린이들을 건강하고 씩씩하게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 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김 철



환희의 봄물결이 일렁이는 이 정겹게 안겨온다.

함께 어려온다.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 라의 꽃으로 활짝 피여 참된 삶을 향유하고있는 이 나라

공화국에서 태양열과 풍력 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평성시에서도 풍력과 태양

조성하여 자연에네르기를 효 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현재 평성시에서는 시안의 10여개 단위들이 풍력발전기 를 설치하여 그 덕을 보고

에네르기에 의한 발전능력을

있다. 특히 에네르기절약형종어 장으로 훌륭히 건설한 미꾸 라지종어장에서는 여러대의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판 을 리용하여 알깨우기로부 터 새끼물고기생산, 양수동 력과 조명보장 등 관리운영 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자급

자족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얼마전부터 평 성시 역전동 주민지구에서는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판 에 의한 2중전원공급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있는데 주민들속에서 그에 대한 호

평이 대단하다고 한다. 또한 시에서는 자연에네르 기에 의한 발전능력조성사업 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평성자동화기구광장의 기술 자들이 직접 나가 걸린 문제 들을 제때에 풀어주도록 함 으로써 여러 단위들과 주민 들속에서 자연에네르기를 적 시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

게 추동해나가는 조선녀성들 수놓은 창조와 혁신, 미 풍의 열매들은 우리 조국의 위대함, 인간사랑의 숭고한 화폭으로 만사람을 격동시키 고있다.

단 몇달동안에 년간계획 을 초과수행한 방직공처녀

-이 나라 녀성들의 복된 삶을 두고-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채택 된 남녀평등권법령으로 하 여 우리 녀성들의 운명에서 계의 하늘높이 람홍색공화 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사회의 버림받던 인생으로 부터 나라의 주인으로, 불행 과 설음의 대명사로부터 시 대의 꽃으로 피여난 이 나라

녀성들이다. 창전네거리에 서면 모든것 이 다 보인다. 한 가슴에 안 겨온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 낀다고 우리는 창전네거리에 서 이 나라 녀성들의 행복상 을 뜨겁게 느끼게 된다.

안해가 되여 일생을 같이해 나가는 감동의 이야기, 세 국기발을 휘날리는 녀성체 육인들의 장한 모습, 조국 의 푸른 하늘을 지켜가는 녀 성초음속전투비행사들의 야기…

한떨기 아름다운 꽃을 피 우자고 하여도 태양의 빛 과 열이 있어야 하고 정성 껏 가꾸어주는 손길이 있어 야 한다.

이 나라 녀성들의 복된 삶 의 높이런가, 아아한 창공높 이 솟은 창전거리 고층아빠 평양의 중심거리만이 아 트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에게만 차례진것이랴. 궐같은 로동자합숙에서 세상 에 부럼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평범한 녀성로동자들의

모습도 바로 이 거리에서는

사는 녀성들의 처지는 어떠

다 보인다. 녀성이라는 존재는 사회제 도에 따라서 평가된다. 오늘날 자본주의세상에서

한가.

녀성들에 대한 차별행위 가 더욱 로골화되고 확대되 여가고있는 속에 녀성로동자 들이 남성로동자들도 싫어하 는 생산공정으로 강제로 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궁 손길이 있어 지난날 불행하 고 수난많던 이 나라 녀인들 이 오늘은 세상이 부러워하 는 긍지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다.

조선의 복받은 녀성들을 축복하여 하늘에는 따사로운 해빛 넊치고 대동강 맑은 물 은 노래하며 흐른다.

# 자연에네르기의

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더 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게 하

고있다. 남포시에 자리잡고있는 남 포도시설계연구소에서도 건 물의 지붕들에 140여개의 박 막식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 고 새로운 전력공급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관경영활동

에서 큰 실리를 얻고있다. 물론 이곳 설계연구소에는 이미전부터 연구사들의 창작 적사색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특성으로부터 국가전력 망과 발동발전기에 의거하 는 2중전력공급체계가 서있 었다. 하지만 이곳 설계연구 소에서는 자연에네르기를 리 용하면 자체의 힘으로도 얼 마든지 기관경영관리에 필요 한 전력을 해결할수 있는것 의거하며 또 연유를 소비하 는 발동발전기에만 매여달리 겠는가고 하면서 실리에 맞 게 박막식태양빛전지판들을 설치하고 자체로 전력을 생 산리용하고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는 연구소의 수많은 콤퓨터 들을 모두 사용할수 있고 교 차생산조직만 잘하면 전력소 을 어째서 국가전력망에만 비가 큰 설비도 얼마든지 가

기관경영관리에서 큰 실리를 얻고있다. 황해남도 청단군 심평농장 에서도 태양빛전지에 의한 전력생산의 덕을 톡톡히 보

동시킬수 있는것으로 하여

고있다. 이곳 농장에서는 태양빛전 지판들을 합리적인 장소들에 설치하여 요구되는 전력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농작물의 생육과 병해충발생 상태 등을 항시적으로 관찰 하고 그에 맞는 기술적대책 을 제때에 세울수 있게 포전 마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들 과 품종배치, 토양분석, 기 상관측자료에 기초한 영농기 술공정설계를 담당수행하고 있는 콤퓨터들에 공급되고있 다. 또한 작업반들에까지 구 축된 망을 통한 화상회의와 농산과 축산 등 부문별농업 과학기술성과자료들에 대한 열람을 비롯한 과학기술보급 사업도 태양빛전지판을 리용 하여 생산한 전기로 보장하

고있다. 이 단위들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서나 자력갱생의 기 치높이 자연에네르기를 효 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 한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 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진 혁



평성자동화기구공장에서 풍력발전기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이 땅우에는 수많은 꽃들 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목란 꽃은 공화국인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꽃의 하나이다. 공화국에서 국화로 되고있 는 목란꽃.

기자는 주일엽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부소장을 만나 목란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 누었다.

기 자: 조선의 국화 목란 꽃에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심혈이 깃들어있다고

주일엽: 어느해인가 정 방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시절 에 이곳에 오시여 보신 특 이한 꽃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교하시였다. 그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 에게 수령님께서 회고하신 그 꽃나무를 찾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줄기색갈과 잎생 김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시 여 뒤산에 가서 그 꽃나무를 꼭 찾아보자고 뜨겁게 교시하 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찾 아내도록 하신 꽃나무를 어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리시 였다.

꽃나무를 세심히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번영 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공화 국의 현실을 여러 나라 인터 네트홈페지, 방송이 널리 소 개선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띄 모스크바》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과 있다. 언론들은 가혹한 제재속에서 도 조선의 경제가 빠른 속 도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기적으 로 평가하고있다.

고있음을 실증해준다.

조선은 경제발전에서 나서 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의 자 주정신과 창조정신, 과학기 술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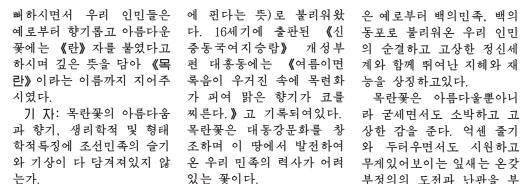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늘 이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 조선의 국화—목란

예로부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에는 《란》자를 불였다고 하시며 깊은 뜻을 담아 《목 **란》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 시였다.

기 자: 목란꽃의 아름다움 과 향기, 생리학적 및 형태 학적특징에 조선민족의 슬기 와 기상이 다 닦겨져있지 않

주일엽: 그렇다. 오래전 부터 목란꽃은 우리 인민들 속에서 함박꽃나무, 목련 화(런꽃과 같은것이 나무



백두의 흰눈처럼 하얀색을 기본바탕으로 하고있는 정갈 동포로 불리워온 우리 인민 의 순결하고 고상한 정신세 계와 함께 뛰여난 지혜와 재 능을 상징하고있다.

목란꽃은 아름다울뿐아니 라 굳세면서도 소박하고 고 상한 감을 준다. 억센 줄기 와 두터우면서도 시원하고 무게있어보이는 잎새는 온갖 부정의의 도전과 난관을 부 시고 자신들의 근면하고 성 실한 노력으로 이 땅우에 존 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목란 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 꽃의 빛갈과 아름다운 모양 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도도

한 기상과 활 주고있다.

목란은 단일 품종으로서 어 느 지방에 심 어도 꽃의 형 태 와 크기, 색갈이 다 같 다. 이런 특성 은 한강토에서 하나의 혈통 과 언어, 문화 를 가지고 반 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결백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그 어 디에 가서도 민족성을 고수 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기질 과 일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목란 꽃은 아름다울뿐아니라 향기 롭고 열매도 맺으며 생활력 도 있기때문에 꽃가운데서 왕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 면서 목란꽃을 우리 나라의 국화로 정해주시였다.

목란꽃은 생활력이 대단 히 강하기때문에 번식시키기 도 쉽다.

목란은 우리 나라 북부고 산지대를 제외한 각지의 깊 은 산과 물이 흐르는 산골짜 기나 산허리 등 습기가 비교 적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력에 넘친 모 번식은 씨앗, 접, 가지휘여 습을 잘 보여 묻기, 포기가르기 등으로 하 며 가지심기도 할수 있다.

목란은 꽃이 아름답고 향 기로우며 나무잎과 나무모양 이 보기 좋은것으로 하여 우 리 인민의 사랑속에 널리 재 배되고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 애를 길이 전하며 인민의 가 슴마다에 무한한 민족적긍지 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아름 다운 목란꽃은 날로 륭성번 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국화 로 이 땅우에 영원히 만발할 것이다.

### 행복을 위한 경제전략

여러 나라 인터네트홈페지, 방송이 소개

있으며 인민생활과 련관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경제 담보하는 가장 중대한 자산 전략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민경 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 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이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 의 경제전략이 성과를 거두 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 해주기 위한 조선특유의 전

략이라고 말할수 있다. 캄보쟈국가라지오방송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세계적인 강국으로 공인되 고있는 조선에서는 사회제 조선에서는 원료와 연료, 도와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이 인민들의 웃음이라고 보

이런 의미에서 조선이 3대 마련하는데서 황금벌이 차지

전략자산으로 내세우는 황 부문들의 발전이 중시되고 금산, 황금벌, 황금해는 나 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 일찌기 김일성주석께서 산 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 용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신 때로부터 조선의 산간지역들 에서는 산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고 풍부한 지방원료에 의거하는 경제발전사업이 활 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대규모 토지정리를 발기하시고 현명 하게 이끄시여 조선의 전야 를 황금나락 설레이는 풍요 한 대지로 전변시키시였다. 조선에서는 인민의 행복을

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시 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 황금해는 나날이 륭성번 영하는 조선의 현실을 보여 주는 새로운 시대어로 되고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전 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 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 렸다.

나날이 변모되는 조선의 모습이 세계의 관심을 모으

가는 곳마다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있다.

자기 방식으로 유족한 생 활을 창조할수 있으며 하 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 이 없다는것을 세계에 증명 하고있다.

이러한 조선의 전변이 결 코 조건이 특별히 좋고 여유 가 있으며 풍족하여서가 아 니라는데 류의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박속에서도 발전을 이룩해가는 조선의 모습을 통하여 부강한 미래 를 앞당겨오려는 조선인민 의 견인불발의 정신세계를

베네수엘라의 인터네트홈 페지 《엘 끌룸 데 라스 나 씨오네스》 는 자체의 힘과 기 술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 을 건설하려는것은 조선사람 들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강

공화국에서 마감 건재의 주체화를 실 현하는데 큰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

건재는 건설의 3대요소중의 하나 이다. 설계가 아무 지 리 좋고 시공을 잘 하였다고 해도 마감 건재가 제때에 원만 히 보장되지 못하면 건축물을 훌륭히 일 떠세울수 없다.

고있다.

마감건재의 주체 ┰ 화에서 첫 공정은 원료의 주체화를 실 현하는데 있다.

공화국은 마그네 사이트와 질석을 포 함하여 건재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풍 **2** 부한 원료원천을 가 지고있다.

단천마그네 샤공 장에서는 생산원가 가 놓고 화경비호 가 눅고 환경보호 에 좋은 경소마그 네샤가공품들을 생 산하고있는데 그 질 이 높아 널리 쓰이 고있다.

경소마그네 샤로 만든 제품은 대기중 의 탄산가스를 흡수 하므로 살림집에서 이런 마감건재를 쓰 면 집안에 나무를 몇그루 심

어놓은것과 같은 효과를 나

타낸다고 한다. 단천마그네 샤공장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건 재품들을 개발할 목표밑에 이악하게 노력하여 자체의 원료와 기술, 자체의 설비로

경소마그네샤가공품을 생산

하기 위한 공정을 훌륭히 꾸

로 수요가 높은 경소마그네 샤로 견고하면서도 미적가치 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건 재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 해내고있다.

질석과 부사 등의 원료원 천을 리용한 마감건재품들도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많이 생산하고있다. 청진스레트공장에서는 수

입에 의존하던 중유대신 풍 부히 매장되여있는 갈탄으 로 부품진주암, 부품질석생 산을 정상화하여 마감건재생 산의 주체화실현에 적극 이 바지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질 석으로는 마감장식특성이 높 고 항균과 보온능력이 우월 하며 습기 및 냄새제거, 소 리흡수, 먼적외선 및 음이온 을 발생시키는 다기능질석판 을 만들어 건축물장식에 리 용하고있다. 최근에 무봉부사마감건재

중간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백 두고원지대에 무진장하면서 도 새로운 만능건재, 록색 건재로 인정받고있는 부사를 건재품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부사 로는 보온재. 천정재 등 여 러가지 마감건재품을 만들수 있다. 부사보온재를 쓰면 건 물실내에서의 부패되는 현상 과 이슬점을 완전히 없앨수 있으며 부사천정재는 사람들 의 미학적요구를 만족시키면 서도 인체에 유리한 건축환 경을 마련하는데서 그 리용 가치가 대단히 크다.

이와 함께 자체의 힘과 기 술로 마감건재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 고있다.

마감건재의 기술적지표들

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면 현재 공장에서는 세계적으 인차 파손되고 재시공으로 인한 많은 경제적손실을 입 게 된다. 이로부터 마감건재 의 내구성을 높이는데 관심 을 돌려야 한다. 마감건재의 내구성을 높이는것은 건축물

의 견고성과 안전성을 보장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 들은 건재생산기지들과 협 동하여 자체의 힘으로 마 감건재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건재생산기지들에 서는 제품 단위당 원자재소 비기준을 최대한으로 낮추면 서 건재품들의 질적지표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 을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가 실현된 실용성이 높은 마감건재품들을 자체로 더 많이 개발생산하고있다.

최근에 개발되여 널리 쓰 이고있는 종이면석고판, 수 성다색무늬칠감, 자연돌질 감이 나는 색보도블로크와 석고타일들은 질이 높고 재 생리용이 가능한 실용성있 는 록색건재, 기능성건재들 인것으로 하여 호평이 자자

국가과학원에서 새로 개발 한 나노실리카공기겔보온칠 감만 놓고보아도 시공이 편 리하고 보온특성이 좋은 등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는 첨단기술제품이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마 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 시회는 공화국의 마감건재 공업의 자립성과 발전수준 을 보여준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김영춘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 반민족, 반력사적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 리우려는 《자유한국당》의 선언문은 《자유한국당》 최근 일본이 우리 민족의 평화당소속 《국회》의원들 이 11일 서울의 영등포구경 찰서건물앞에서 광주봉기정 신을 외곡한자들을 비호하 는 《자유한국당》을 규탄 하였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이 팡주봉기정신을 외곡한자들 을 비호해주고있다고 주장 하였다

팡주봉기를 모독하는것은 팡주시민들과 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것이라고 그들은 단 을 외곡한자들의 처벌을 요 죄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

족일보》가 6일 《자유한국

당의 무덤을 파는 황교안》

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황교안이 《자유한

국당》 최고위원회의라는데

서 동족대결과 친미굴종이

뼈속까지 박혀있는 친미수구

악페세력으로서의 황당한 궤

변을 늘어놓은데 대해 비난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였다

땅에서의 친일파청산을 가

하였다.

남조선 《뉴시스》에 의 그들은 력사와 진실을 가 였다. 비렬한 처사에 대해 비난하 면서 관련자들을 반드시 처 벌하여 반민족, 반력사적행 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지 않는다는것을 시대와 력

사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 조 선 신 문 이

문은 주장하였다.

규탄하였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만을 드러벌뿐이라고 하면

친일세력과 군사파쑈악폐세 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

한편 남조선신문 《서울경 제》에 의하면 서울민중행 동 추진위원회가 7일 서울 의 《국회》건물앞에서 기자 회견을 가지고 광주봉기정신 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

《자유한국당》의 무덤을 파는 황교안

력의 후예로서 진작 청산되

였어야 할 반역무리라고 신

부지해오던 《자유한국당》

이 평화번영, 통일의 새시대

가 열리자 발악적으로 이를

막아보려고 책동하고있다고

황교안의 행태는 《자유

한국당》의 친미굴종적본색

신문은 동족대결로 잔명을

비난

조하였다

진되고있다.

이 5.18민중항쟁에 대해 외 곡한자들을 아직까지도 처 벌하지 않고있다고 단죄하

민주의 력사를 부정하고 조선반도평화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그 대로 둘수 없다고 선언문은 밝혔다.

선언문은 관련자들을 《국회》의원직에서 즉시 제 명하고 《5.18력사외곡처벌 법》을 내와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전혀 통하지 않는 주장으

로 평화번영, 통일의 새시대

에 역행할수록 민족의 분노

박근혜의 하수인인 황교안

의 계속되는 망언들로 인해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친미수구파전체의 몰락이 촉

결국 황교안의 등장은

《자유한국당》, 친미수구

파에게 무덤으로 된다.

만을 일으키게 될것이다.

# 도를 넘는 령토강탈야망

고유한 령토인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며 재침 야욕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 러내놓고있다.

얼마전 시마네현에서 진 행된 제14차 《다께시마 (독도)의 날》기념식놀음에 참가한 일본정부대표는 《〈한국〉에 불법점거된 다 께시마는 력사적사실로 보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고유의 령토이다.》,《국가백년대 계에 립각하여 국민전체가 힘을 합쳐 대처해나가야 한 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같은날 내각관방장관, 령토 문제담당상을 비롯한 고위 인물들도 저마다 언론에 나 서서 령토주권은 국가의 기 본이다. 앞으로도 《다께시 마》에 대한 일본의 립장이 국내외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선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줴

쳐댔다. 또한 일본당국은 남조선 의 해양조사선이 독도주변 을 항행한데 대해 《일본령 해를 침입했다.》고 고아대 면서 규탄결의문을 발표하고 외교경로를 통한 항의를 하 는 추태를 부리였으며 우익 개정으로 해외침략의 법률적 깡패들과 어용나팔수들을 내 세워 독도문제를 더욱 쟁점 화. 분쟁화하고있다.

일본의 망동은 섬나라족 속들의 골수에 사무친 재침 야망, 령토팽창야망의 집중 적발로로서 우리 민족의 령 토주권에 대한 란폭한 도 발이며 용납 못할 침해행 위이다.

독도가 력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라는것은 객과적사실자료들에 의해 립 증되지 오래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저들의 일방적인 주 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자라나 는 새 세대들에게까지 독도 가 저들의 령토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입하고있다.

독도문제를 여론화. 국제 화하여 령토분쟁을 일으키고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아시아 인민들에게 또다시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들씌우자는 것이 아베정권의 흉심이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 다. 그 흉심을 실현하기 위 해 지금 일본은 군사대국화 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헌법

토대를 마련하여 《대동아공 영권》의 옛꿈을 기어코 실 현해보려고 혈안이 되여 날 뛰고있다.

날로 무모해지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은 오늘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 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전 쟁화근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똑똑히 알 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신 성한 령토인 독도를 강탈하 려는 사무라이후예들의 흉심 은 천만년이 흐른대도 절대 로 실현될수 없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과거죄악에 대한 사 죄배상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재침책동에 열을 올리는 일 본의 발악적준동을 추호도 용납치 않고 단호히 짓뭉개 버릴 열의로 심장의 피를 끓 이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와 함께 평화를 사랑하는 국 제사회도 분별을 잃고 날뛰 는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해나서야 한다.

리철송

## 방문학부는 지금 당성 로군 성노에제 문제 일본정부는 지금 선생박스 건강이나 ~~ 일본정부는 지금 당장 · 석노예제 문제 본정부는 지금 당장 H결하

벌 리 는 남 조 선 인 민 들 반일투쟁을

### 제 신 ≡

로씨야 유럽동맹의 제재를 무 의 미 한 것 으 로 락 인 그는 유럽동맹의 대로씨야 유럽동맹주재 로씨야상임 대표 울라지미르 치죠브가 제재로 로씨야와 동맹사이의 최근 한 국제연단에서 연설 관계전반이 적지 않게 피해

럽동맹의 제재를 무의미한것 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제재의 방법으로 로 씨야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며 지난 시 기의 사변들이 그것을 실증

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유

를 입고있으며 유럽기업들 이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한 배경에서 로씨야 는 아시아나라들과의 호혜적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

전시키고있다고 그는 강조하

### 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였다. 수리아 화학무기금지기구의 보고 서 HH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성이 7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보

고서를 배격하였다.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최근 수리아 디마스끄부근의 두 마지역에서 벌어진 공격과

정에 화학무기가 사용되였

한것과 관련하여 외무 및 이

주민성은 그것이 완전한 거 짓으로 되여있다고 주장하 였다.

외무 및 이주민성은 그 보 고서가 전문가적측면에서의 분석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대파세력의 범죄행위를 목 을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무시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 엔 기 구 이 스 라 엘 의 국 제 법 위 반 행 위 폭 로

보고서를 발표하여 가자지 대에서 감행된 이스라엘군 의 국제법위반행위를 폭로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유엔의 한 기구가 최근 기간에 가자지대주민들을 목 표로 실탄을 발포하여 수많 은 사상자를 냈다.

> 피해자들은 어린이들과 기 자들, 의료성원들을 비롯한 적수공권의 민간인들이였다 고 한다.

## 일본에서 미군기지설치반대집회

일본 도꾜에서 최근 헤노 설공사를 강행하려는 당국 는것을 반대하는 항의집회가 였다. 벌어졌다.

집회참가자들은 수상관저 꼬를 메우지 말라.》는 구 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호를 웨치면서 미군기지이

꼬지역에 미군기지를 설치하 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

한편 오끼나와현지사는 수 상 아베를 만나 헤노꼬지역 앞에 모여 헤노꼬에는 군사 에로의 후덴마미공군기지이 기지가 필요없다고 쓴 프랑 설을 반대하는 현민투표결과 카드와 기발을 들고 《헤노 를 통지하고 공사를 중지할

본사기자

### 《자유한국당》은 최우선적으로 사 대 매 국 집 단 할 청산해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 말로 최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할 사대매국집단이라고 까밝

족일보》가 6일 《자유한국 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 혔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설을 실었다. 사설은 조국이 해방된지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민족 70년이 지났지만 3.1봉기의 분렬을 획책하고 조선반도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있다

일제에 복무하던자들이 이 이 계속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로막았다고 사설은 주장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는 반 민족정당이자 민중의 자유와 사설은 친일악폐에 뿌리 권리보장을 막아서는 반민중 를 둔 《자유한국당》이야 정당이며 경제위기, 민생파

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

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반민 생정당이다.

《자유한국당》 해체는 자 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 기 위한 전제이자 최우선과 제이다

100년전 일제의 총칼앞에 서도 굴하지 않고 자주독립 을 웨쳤던 우리 민족은 오 늘날 《자유한국당》악폐세 력을 청산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 과 학 기 술 의 위력으 자 력 갱 생 정 신 과

기술축전이 진행되였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 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적극 추동해나가려는 시안의 과학자, 기술자들, 각계층 근로자들의 높은 열 의속에 축전은 런일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축전은 11개 분과로 나뉘여 과학기술성과발표회. 과학기술성과전시경연, 새 기 술교류의 방법으로 진행되였 으며 300여건의 가치있는 과 학기술성과들이 출품되였다.

축전에는 자체의 원료, 자 체의 힘과 기술로 이룩한 우 수한 과학기술성과들이 많이 출품되였다.

영화과학연구소에서 출품 한 《기계식무진동촬영장 치》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제작한것으로 하여 사 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평양 가방공장에서 내놓은 《부각 인쇄용채잉크》제안은 국내 에 흔한 원료로 《소나무》책

최근 평양화장품광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은하수》화 장품 25종이 유라시아경제동 맹의 전문품질분석단위인 종 양과학쎈터품질검정유한책 임회사 실험쎈터의 품질인증 을 받았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기구인 유라시 아경제동맹의 품질인증을 받 은 제품들은 해당 나라들에 서 합법적이고 우선적인 상 품판매와 함께 상품개발과 관련한 각종 협력과 기술교 류도 진행할수 있다.

조선의 특산인 개성고려 인삼을 기본원료로 한 인 삼로화방지크림, 인삼수렴 성살결물, 인삼밤크림, 보 습자외선방지크림, 알로에 보습물크림, 영양살결물 등 모든 제품들이 유라시아경

Til

TO THE

얼마전 제34차 평양시과학 가방상표를 인쇄함으로써 많 기를 절약하는것으로 하여 은 로럭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 학에서 내놓은 《향수주입 밀봉공정의 흐름선화》 도 향수의 질을 높이고 공정 전반의 통합조종을 실현하게 한 가치있는 성과였다.

장, 기업소 등의 책임일군들이 내 놓은 연구성과들 도 적지 않았다.

현봉철 사동 구역가로등사업 소 소장이 연구 한 《전기절약 형 가로등전압안 정단》은 수입 산가로등에 비 하여 적은 전기 를 가지고 밝기 보장하면서 를 전압을 안정시 켜 가로등의 수 명을 늘이고

호평을 받았다.

김호영 산림기계연구소 소 장이 내놓은 과학기술성과인 《나무모온실의 류형과 크기 선정》은 태양열을 최대한 리용하여 지역별특성에 맞게 2회전나무모생산기간을 보 장할수 있는 온실의 류형과

통

역가로등사업소 소장은 《과 학기술문제는 과학자, 기술자 들에게만 해당한 문제가 아니 다.》 고 하면서 과학연구사업 에서 일군들이 앞장서나갈 결 의를 피력하였다.

여 종전보다 많은 자금을 절

우리와 만난 현봉철 사동구

약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축전에는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경공업제품, 의 약품들도 출품되였다.

향료 및 화장품공학연구소 에서 내놓은 세수크림, 살결 물, 향수를 비롯한 각종 화장 품들, 은하제약공장에서 생 산한 콘살주사약, 하당2종합 진료소에서 출품한 벌독관절 염주사약. 령군봉무역회사에 서 출품한 레이자치료기 등 은 국내에 흔한 원료와 약재 들을 리용하여 만든것으로 하여 인기를 모았다.

돌아볼수록 자기 부문, 자 기 단위의 발전을 과학기술 적으로 믿음직하게 추동하는 데 이바지하는 자력갱생의 창 조물들이여서 더없이 소중해 보였다.

제34차 평양시과학기술축 전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자 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 심, 자력갱생에 기초한 과학 기술열풍의 생활력을 다시금 느끼게 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김 춘 경

## 《문한소》 화장품

제동맹의 품질인증을 받음 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은하수》화장품의 질적수준을 뚜렷이 보여주

지난해 공화국을 방문하 여 여러차례 평양화장품공 장을 참관한 유라시아경제동 《코레안 캐어》 유한책임 회사 인사들은 공장이 훌륭 히 꾸려진데 대하여 깊은 감 명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모 두가 지혜를 합쳐 가치있는 창안들을 내놓고 실천에 적 극 도입해나가는 기술발전체 계가 확립되고 제품갱신주기 가 부단히 단축되여 《은하 수》 화장품들이 명상품, 명

110

444 115

제품으로 되고있는것이 관심 을 끈다고 말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인터 네트에 조선의 《은하수》화 장품들을 널리 소개하고 다 량구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 출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 《코레 안 캐어》 유한책임회사 총사 장은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 화장품들은 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녀 성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특 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 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 용을 리용한 화장품들에 대한 녀성들의 애착심이 날로 커가 고있다.》고 말하였다.

> 《은하수》화 장품이 오늘 세 명제품 계적인 들과 당당히 경 쟁을 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 품으로 발전하 고있는데는 평 양화장품공장 을 세상에 내놓 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 으로 일신시키 기 위하여 개건 형성안과 마크, 상표도안에 이

르기까지 세심

한 지도를 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과 과학기술력량. 자재보장대책까지 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을 떠 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 장품생산자들의 안목을 틔워 주시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도 수많이 보내주시고 현대적이고 능력 이 큰 화장품생산기지로 전 변되였을 때에는 몸소 공장 에 나오시여 세계적인 경쟁 력을 가진 질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 계 며 생산자들에게 신심과 용 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말씀을 받들고 평양 화장품광장의 일군들과 종업 원들은 화장품생산공정의 현 대화를 힘있게 추진하는것 함께 자체의 원료, 자체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생 산활성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첨가제 및 원료생산 공정을 새롭게 확립하고 머 리칼미용화장품, 겔형, 분무 형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머리칼고착제를 생산하는 공 정들을 일떠세웠다.

공장에서는 입술이 트거나 마르는것을 방지하는 보호용

입술연지를 녀성용과 남성용 으로 개발하였으며 화장전용 색연필생산공정을 꾸려놓고 검은색과 밤색, 회색의 눈섭 연필을 비롯한 분장용화장품 들과 민감성피부용크림, 애 기피부염치료크림, 주근깨 와 굳은살을 제거하는 크림 등 피부병치료에 좋은 화장 품들도 생산하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의 한 일군 은 《화장품의 질은 피부에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피부가 아름 답고 생기를 유지할수 있게 해줄수록 우수한 화장품으로 인정되고있다. 우리 공장에 서 생산된 제품들에는 개성 고려인삼의 독특한 약효와 효능을 리용한 화장품들이 많다.》고 하면서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들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이 높다 고 말하였다.

평천구역에서 사는 김련 실녀성은 《 (은하수) 화장 품들은 그 기능과 치료효과 도 높지만 피부의 특성에 맞 는 여러가지 화장품들이 많 아 더욱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인 민들속에서 수요가 높고 세 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과 경쟁할수 있는 우수한 화장 품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 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 우 수 래 권 도 선 수 (1)

## 1. 평양시래권도선수단 선수 박미향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의 박 미향선수는 2018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 태권도선수 선정에서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수년간의 선수생활기간 지

칠줄 모르는 정열과 노력을 바쳐 아시아최강자의 지위에 오른 그는 지난해 전승컵전 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녀자 개인맞서기경기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풍부한 국제경기경험과 전 적을 가지고있는 그는 지난 해 몽골에서 진행된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서 강자로서의 높은 실력과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었 다. 특히 태권도 녀자개인맞 서기경기에서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 돌아옆차기와 360° 돌려차고 돌아걸어차기 등

압박적인 공격을 련속 들이 대는 그의 경기모습은 관람 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개 인특기경기에서도 그는 높이 앞차기, 돌려차기, 뛰며 반 대돌려차기, 장애넘어차기 를 손색없이 수행하여 금메 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참가한 국 제경기들에서 20개의 금메달 을 포함한 수십개의 메달과 함께 2차에 걸쳐 개인기술상 을 수여받았다.

인민체육인인 그는 2014년 부터 이번까지 다섯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 정되였다.

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되였다.

공훈체육인인 그는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

## 2. 조선래권도위원회 래권도선수단 선수 김금정 제경기는 2010년 벨라루씨

김금정선수는 지난해 몽골 에서 진행된 제9차 아시아태 권도선수권대회 너자개인맞 서기 62kg급경기에서 우승하 였다. 특히 완력형의 까자흐 스딴선수와의 경기에서 그는 부단한 이동과 재빠른 손발 공격을 결합시키면서 상대방 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련속적인 공격을 들이대여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여러 세부종목경기들에서도 그는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소학교에서 태권도소조원 으로 첫발을 뗸 그는 그후 중앙체육학원에서 꾸준히 훈 련하여 높은 태권도기술을

소유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참가한 국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비 물질문화유산에는 장담그기 도 있다.

직접 반찬으로 리용하거나 여러가지 음식물의 맛을 돋 구는 양념감으로도 써온 된 우리 민족의 뛰여 난 지혜와 창조력, 독특 한 식생활문화를 특징짓

는 우수한 식품으로서 오

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장맛이 단 집에 복이 많 다》라는 속담에서 알수 있 듯이 우리 민족은 장을 한집 안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것

으로까지 귀하게 여겼다. 매 집에서 제각기 장을 담 그어먹는것으로 하여 방법 과 맛이 집집마다 독특했으 며 장을 얼마나 맛있게 담그 느기에 따라 그 지이 프의기 결정되였다.

고구려의 덕흥리벽화무덤 

에서 진행된 제9차 청소년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그는 높은 기술 을 발휘하여 여러개의 금메 달과 함께 개인기술상을 받 았다. 2012년 에스포니야에 서 진행된 제10차 청소년태 권도세계선수권대회 녀자개 인맞서기 52kg급경기를 비 롯한 여러 세부종목경기들 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여 5개 의 금메달과 함께 개인기술 상을 받았다.

2013년 제18차 태권도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한 그 는 2016년 제8차 아시아태권 도선수권대회에서도 6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쟁

본사기자 현은경



고려시기의 옛책에도 장 이 김치와 함께 없어서는 안 국가비물질문화유산

> 될 중요한 식품이라고 씌여 있다.

장담그는 방법은 다음과

립동(11월초)쯤에 잘 여문 콩을 하루쯤 물에 불구었다 가 푹 삶은 다음 절구에 찧 고 직경이 10~15cm정도 되 게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것

메주라고 한다. 으 메주를 벼짚으로 싸서 바 람이 잘 통하고 일정한 온도

가 보장되는 곳에 매달아 자 연적으로 메주균이 자라면서

를 부스러뜨려서 깨끗이 소 독한 독에 넣고 소금과 물 을 3 대 1의 비례로 타서 부은 다음 매일 아침 장 독뚜껑을 열어 맑은 공 기를 쏘이고 해빛쪼이기

를 한다. 두석달 지나 우러나오는 까만 물을 가마에 붓고 졸이 면 간장이 되고 남은것에 부 스러뜨린 메주와 소금을 더 넣고 삭이면 맛있는 된장이

오늘 된장이 암을 예방하 는 등 가장 뛰여난 건강식 품중의 하나라는것이 과학적 으로 밝혀짐으로써 세계적인

단편소설

# (5)

조 정 협, 그림 리 성 일

이때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승무원》 을 자칭하는 한패의 사나이 들이 차칸안으로 우르르 쓸 어들었다. 그들은 승객들과 수연이네를 향해 마치 구면 지기나 만난듯이 유쾌한 덕 담을 건네였다.

《할머니, 차표 봅시다. 옛날엔 이렇게 했지요? 핫

하. 》 《어랍쇼. 이게 몇해만입 니까? 우리 기차에 올라본지 도 퍽 오랬지요?》

《그래, 죽기 전엔 임자네 를 더 못 보는가 했지.》 녀인도 백발을 흔들며 자연스럽게 롱담을 받아주

었다. 《원, 할머니두. 장수하시 면 오늘처럼 좋은 날을 보게 된답니다.》

《승무원》들은 차칸의 분 위기를 대번에 화락하게 만 들며 앞으로 나갔다.

《할머니, 평양까지 무사 히 다녀가십시오.》

《그래 평양에서 다시 나자구.》

윤수연에게는 어쩐지 녀 인이 롱을 하는것으로 보이 지 않았다. 이 철길이 북으 로 런런히 이어지던 때를 살 아본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 다를것이라고 그는 생각하 였다.

《승무원》들이 차칸을 나 아직은 비유클리드기하학이

언뜻 다가들었다. 간이역사

앞에서 놀던 아이들이 렬차

를 향해 조그마한 두손을 흔

들어보였다. 유수연은 금시

어린시절 마을아이들과 함

께 철길에 나와 노닐던 자기

의 소녀시절 모습을 보는것

그 시절 수연은 강정식이

며 동네아이들과 나란히 레

루우에 올라 오이씨같은 발

을 아장아장 옮겨딛으며 학

문득 그 시절의 어느날 강

강정식의 건너편에 서서

아득한 지평선 멀리를 바라

보던 수연은 차츰 서로 가까

이 다가붙고있는 두줄기 레

저기에 가면 서로 만나게 될

그 말을 들은 강정식이 코

《그게 왜 허튼소리야?》

거든. 평행선은 영영 사귈수

《철길은 말야, 평행선이

강정식은 학교에서 배운

유클리드기하학의 공리까지

들먹이며 뻐기듯 말하였다.

《저것 봐. 우리도 이제

정식과 별치 않은 문제로 말

다툼하던 일이 생각났다.

교로 오가군 하였다.

루를 가리켜보였다.

방귀를 뀌였다.

《쳇. 허튼소리.》

거야.》

없어. 》

만 같았다.

란것도 있다는것을 알지 못 설무렵 기적소리가 울리여왔 다. 창밖으로 작은 간이역이 하던 시절이였다.

> 리였다. 《그러니까 우린 영영 만 날수 없다는거니?! 하지만 저끝에까지 가느라면 언젠 가는…》

어린 수연에게는 강정식의

그 말이 못내 서운하게 들

그 말에서 수연의 동심을 읽은 강정식은 측은한 마음 이 동한듯 빙굿 웃음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수연, 어서 이 손을 잡 아. 》

수연은 영문을 모른채 강 정식이 내민 손을 맞잡았다. 《네 말이 맞았어. 이렇 게 하니까 평행선도 사귈수 있구나. 저 멀리서가 아니 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말

이야. 》 총각의 말뜻을 깨닫는 순 간 수연의 두눈은 신기한 발 견이라도 한듯 반짝 빛을 뿌 리였다.

그들은 기차가 올 시간이 면 해별에 단 따스한 레루 장에 귀를 대고 어딘가 미 지의 먼곳으로부터 점점 가 까이로 다가오는 차바퀴소리 에 귀를 기울이였다. 달칵거 리는 금속음이며 레루의 진 동이 점차 크게 느껴질 때면 가슴은 느닷없이 세차게 설 레이며 짜릿한 쾌감에 싸이 군 하였다.

드디여 거대한 물체가 대 지를 흔들며 다가올 때 장난 군아이들은 자기의 손가락만 큼 굵은 못을 하나씩 레루우 에 올려놓고는 《와—》 하 고 흩어져가군 하였다. 그리 고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 는 육중한 차바퀴와 레루사 이를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군 하였다.

기차가 먼지바람을 남기 고 지나쳐가면 아이들은 철 길에 우르르 몰켜와 저마끔 철마의 발굽에 납작해진 못 을 집어들고 좋아라고 떠들 어대였다. 그러다 철길감시 를 나온 사람에게 들키는 날

였다. 윤수연은 자기에게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게 해준 꼬마 들을 향해 다정히 손을 흔들 어주었다.

아이들의 모습은 잠간사

이에 시야를 스치며 멀어져 갔다. 《그러니 그도 잊지 않고 있었구만.》

녀인의 목소리가 상념을 깨치며 울려왔다.

사색어린 눈길로 차창밖을 내다보던 녀인은 《하긴 잊 을수가 없지.》 하고 혼자말 처럼 뇌이였다.

윤수연은 녀인의 기차표



에는 되게

여하튼 그 시절 기차를 기 다린다는것은 까닭없이 즐겁 고 가슴설레이는 일이였다.

그런 인연때문인지 어른 이 되여서도 기차소리만 들 으면 어린시절의 그 기차가 또 어딘가 멀리서 기쁨을 가득 싣고 달려올것만 같은 생각에 가슴이 설레이군 하

다. 녀인과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을 밟으며 살아온 한 세대의 력사가 그 작은 기 차표에 얽혀있을것 같은 느 낌이 들었다.

잠시후 고개를 돌린 녀인 은 수연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듯 말하였다.

표는 우리 어린시절의 추억

이 깃든걸세. 나에겐 생의 한 부분처럼 소중한것이지. 그래서 남에게 보이고싶지 않았어.》 《그랬군요. 그럼 저를

다시 찾은 리유는 무엇입 니까?**》** 녀인은 당연한 물음이라는

듯 흔쾌히 대답해주었다. 《〈평양행〉 기차가 떠난 다는 소식때문이였어. 임잔 내 심정을 다 몰라. 난 한

생 그 소식을 기다려 산 늙

은일세.》

어제 밤 《평양행》 기차 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들떠있던 녀인은 자기 를 찾아왔던 녀기자를 떠올 리였다. 그를 만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기 인생의 비 밀을 털어놓고싶었다.

너인은 품속에서 색날은 손수건을 꺼내여 한겹두겹 조심히 풀어헤치였다. 그러 자 그속에서 자그마한 기차 표 하나가 나졌다. 어제 수 연을 실망시켰던 옛 기차표 였다.

《그 윤정수란 사람에게 형이 있었어. 그분은 바로 나의 첫 스승이였지. 그리고 나에게 이 기차표를 준 사람 이기도 했어.》

순간 수연의 가슴은 몹시 울렁이였다.

차바퀴소리는 달그락거리 며 끊임없이 울리는데 녀인 의 이야기는 아스라히 멀어 져간 옛 시절을 더듬으며 이 어져나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연 은 한 사나이의 형상을 눈앞 《사실 자네가 찾는 기차 에 그려보았다. 굳세고 소박 한 로동자풍의 사나이였다.

에는 무덤을 만드는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흰쌀밥, 고 기, 술과 함께 장도 먹었다 마르도록 놓아둔다. 는 내용의 글이 씌여있다. 3월경에 바싹 마른 메주

인기식품으로 되고있다.

### 좋은 몸 단 련 에

정구는 몸단련에 좋은 체 육종목이다.

우선 정구는 사람들에게 기민한 동작과 순간적인 판 단력을 키워준다. 정구는 경기장중심에 그물

을 가로 건너치고 채로 공을 쳐서 넘기는 방법으로 승부 를 가르는 구기종목이다. 쳐넣기, 임의의 위치에로 의 빠른 이동, 받아치기 등

의 동작들을 수행하는 과정

에 균형감각과 운동지각이

발달된다. 그리고 경기장구역에 대 한 지각, 이동방향과 위

치, 전술수법에 대한 판 단, 예측 등과 같은 지능 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 달시키기때문에 기민한 동 작과 순간적인 판단력을

또한 정구는 속도와 힘 인내력을 높여주고 의지를 단련시켜준다.

키우게 되다

특히 정신로동을 하는 사 람들이 정구를 치면 몸을 단 련할수 있을뿐아니라 정신상 태도 상쾌해진다. 정구를 치 기 전에 준비운동을 잘하여 야 한다.

《그것은 북이 동쪽에 놓

그러자 사또가 이번에는

《창으로 창문을 찔러서

난 구멍을 창구멍(창으로

구멍(창문구멍)이라고 하

《그럼 눈오는 날 눈을

다른 방법으로 시비를 걸

본사기자

## 유 **모** 아

옛날 어느 한 사또가 고 을을 순시하다가 령리하고 아도 북, 서쪽에 놓아도 북 말재간 또한 그지없다고 소 이 되는것과 같은 리치올 문난 소녀에게 말을 걸어 보았다.

《얘야, 저 물우에 떠있 는 오리는 십리를 가도 오 리, 백리를 가도 오리라고 하는데 왜 그럴가?》

《글쎄올시다. 할미새는 낸 구멍)이라고 하나, 창 갓 깨여나도 할미새, 오래 살아도 할미새라고 하는것 과 같소이다.》 사또는 머리를 끄덕이며

또 물었다. 《새장구는 새것도 새장 구, 헐어도 새장구라고 하 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리

시다.》

어왔다

나?》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의 얼 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눈 물(감정의 분비물)이오이 까, 눈물(눈이 녹은 물)이 오이까?》 **《···》** 

위

원 회

편 집

주소:평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